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

고1 국어 비상(박영민) | 4(1) 음운의 변동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직전 보강



선생님! <음운의 변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학교 시험에서 음운 변동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언어 자료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어. 따라서 음운 변동의 개념과 음운 변동 유형에 따른 개별 음운 변동 현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그런데, 음운 변동이 뭐예요?

음운 변동이란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란다.



아하~! 선생님, 음운 변동에도 유형이 있어요?

그럼~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교체), 서로 다른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축약), 두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탈락),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경우(첨가)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지!



오호~! 그럼 음운 변동 유형에 따른 개별 음운 변동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야! 음운 변동 유형에 따른 개별 음운 변동 현상은 다음과 같단다! 먼저 교체에 해당하는 개별 음운 변동 현상을 설명해 줄게.



-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소리 나는 현상 - 예) 밖[박], 꽃[꽃]
- ② 비음화: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예) 잡는[잠는], 국물[궁물]
- ③ 유음화: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예) 신라[실라], 칼날[칼랄]
- ④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예) 굳이[구지], 밭이[바치]
- ⑤ 된소리되기: 안울림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예) 국밥[국뽕], 할 줄[할쭈]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

고1 국어 비상(박영민) | 4(1) 음운의 변동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활동 1 음운 변동의 개념과 유형

1. 다음 글을 읽고, 음운 변동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자.

국어에서는 어떤 **형태소**(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이야기책'에서 '이야기', '책'과 같은 것을 말함.) ('형태소'에 빈칸을 뚫고 알맞은 용어를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의 **음운**(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 예 '발 : 팔'의 'ㅂ'과 'ㅍ' / '김 : 곶'의 'ㄱ'과 'ㅋ')('음운'에 빈칸을 뚫고 알맞은 용어를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옷'이라는 형태소는 단독으로 발음될 때, 받침의 'ㅊ' 소리가 'ㄷ' 소리로 바뀌어 [은]으로 소리 난다.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옷'의 음운 변동의 유형과 표준 발음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옷'을 예시로 활용하여 음운 변동의 유형과 표준 발음을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옷'이 'ㄹ'이나 'ㄴ'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면 '옷만 [은만]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옷놀이[은노리]'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 연음 - 연음은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의 음운 변동 현상에 포함되지 않음.)처럼 [은]으로 소리 난다.]([: 음운 변동의 예) 이처럼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음운 변동의 개념)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음운 변동 유형을 나누는 기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교체)(음운 변동의 유형 ①), 서로 다른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축약)(음운 변동의 유형 ②), 두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탈락)(음운 변동의 유형 ③),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경우(첨가)(음운 변동의 유형 ④)]([: '교체, 축약, 탈락, 첨가'에 빈칸을 뚫고 해당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이 무엇인지 써 보자.

→ 음운 변동이란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2) 다음 단어의 발음을 써 보고, 해당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찾아 연결해 보자.

단어	음운의 변화	음운 변동 유형
물+난리 → [물랄리]	'ㄴ'이 'ㄹ'로 바뀌어 소리 남.	교체
[낱+-은 → [나은]]([: 표준 발음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받침의 'ㅎ'이 발음되지 않음.	축약
숨+이불 → [숨니불]	'ㄴ'이 첨가되어 소리 남.	탈락
놓+-고 → [노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소리 남.	첨가

2. 다음 **표준 발음법**(음운의 변동이 표준어의 발음에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님. 그중에서 허용되는 것만을 규범화한 것이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에 해당함.) 규정을 참고하여 단어를 발음해 보고,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탐구해 보자.

[제4장 **받침의 발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자음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이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일곱 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됨.)]([]: **받침의 발음을 <보기>로 제시하여 받침의 발음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단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단어의 음운 변동 과정을 분석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ㄱ]), 'ㅅ, ㅆ, ㅈ, ㅊ, ㅌ'([ㄷ]), 'ㅍ'([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1) 위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단어의 발음을 써 보자.

단어	발음	단어	발음
강산	[강산]	바깥	[바깥]
동녘	[동녘]	풀숲	[풀숲]

(2)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파악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위 규정대로라면 '국내'와 '천눈'은 각각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국내'는 표기대로 [국내]로 발음하고, '천눈'은 'ㅅ'이 어말에서 [ㄷ]으로 바뀌니까 [천눈]으로 발음해야 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따랐을 경우의 발음) 그런데 둘 다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위 규정만 보면 [국내]와 [천눈]으로 발음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외에 다른 음운 변동의 영향을 받음.)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궁내] (비음화로 인해 'ㄱ'이 'ㅇ'으로 바뀜.)와 [천눈] (비음화로 인해 'ㄷ'이 'ㄴ'으로 바뀜.)으로 발음했어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변화한 것은 'ㄴ' 소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활동 2 음운의 교체 현상 - ① 비음화와 유음화

1. 다음 기자의 말에서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빈칸을 채워 보자.

[명절을 맞아 전통 시장에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이 김밥과 어묵 **국물**([궁물] ㄱ→ㅇ : 비음화)로 배를 채웁니다. 준비한 물건을 이미 다 팔고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는**([단는] ㄷ→ㄴ : 비음화) 가게도 보입니다. 손님의 발걸음을 **잡는**([잡는] ㅂ→ㅁ : 비음화) 다채로운 전들이 하나같이 맛있어 보입니다. 손님이 없을까 봐 **염려**([염녀] ㄹ→ㄴ : 비음화)했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종로**([종노] ㄹ→ㄴ : 비음화)의 전통 시장에서는 주변 **실내**([실래] ㄴ→ㄹ : 유음화) 체육관과 연계하여 각종 체험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가족과 함께 전통 시장을 방문하여 **단란**([달란] ㄴ→ㄹ : 유음화)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해당 지문을 <보기>로 제시하여 밑줄 친 단어의 음운 변동 결과에 따른 발음과 음운 변동의 명칭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음화와 유음화의 개념에 대해 학습해 두어야 하며,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의 음운 변동 양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해당 지문을 제시하여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음운 변동 과정	음운 변동 결과	
국물[궁물]	ㄱ + ㅁ → ㅇ + ㅁ	ㄱ → ㅇ	→ 비음화
닫는[단는]	(ㄷ) + (ㄴ) → (ㄴ) + (ㄴ)	(ㄷ) → (ㄴ)	
잡는[잡는]	(ㅂ) + (ㄴ) → (ㅁ) + (ㄴ)	(ㅂ) → (ㅁ)	
염려[염녀]	ㄹ + ㄴ → ㄹ + ㄴ	ㄹ → ㄴ	
종로[종노]	(ㅇ) + (ㄹ) → (ㅇ) + (ㄴ)	(ㄹ) → (ㄴ)	→ 유음화
실내[실래]	ㄴ + ㄴ → ㄴ + ㄹ	ㄴ → ㄹ	
단란[달란]	(ㄴ) + (ㄹ) → (ㄹ) + (ㄹ)	(ㄴ) → (ㄹ)	

2. 다음 단어의 발음을 써 보고, 비음화가 나타나는 것과 유음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해 보자.

죽녹원[중노권]	[한라산[할라산]]([: '발야구[발라구]'의 음운 변동을 탐구한 것을 묻는 문제에 "발야구'에는 '한라산', '올여름'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군.'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영릉[영능]
----------	---	--------

→ 비음화가 나타나는 것은 'ㄱ'이 'ㅇ'으로 바뀌는 '죽녹원'과 'ㄹ'이 'ㄴ'으로 바뀌는 '영릉'이다. 유음화가 나타나는 것은 'ㄴ'이 'ㄹ'로 바뀌는 '한라산'이다.

3. | 보기 | 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의 음운 변동 과정을 써 보자.

보기				
날는	→	[날는]	→	[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규칙

• [**활는**] → [**할는**] → [**할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음화

([: '활는데'의 발음되는 음운의 수와 표기된 음운의 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활는'의 음운 변동 과정을 분석하여 표준 발음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엌만** → [**부억만**] → [**부영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지식 콕콕

비음화와 유음화(‘비음화’, ‘유음화’라고 할 때의 ‘화(化)’는 원래의 상태와 달리 변화했다는 뜻, 즉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함.)(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를 <보기>로 제시하여 음운 변동 과정을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의 음운 변동 과정을 분석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 비음화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콧소리,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ㄴ’, ‘ㄹ’, ‘ㅇ’ 따위가 있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유음** ‘ㄹ’이 비음 ‘ㄹ, ㅇ’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ㄹ’의 비음화의 개념)도 비음화에 속한다.


☞ 유음화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흐름소리,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국어의 자음 ‘ㄹ’ 따위가 있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활동 2 음운의 교체 현상 - ② 구개음화

1.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구개음화 현상을 탐구해 보자.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같이 왔다.’라는 문장을 함께 읽어 볼까요? 이때 ‘같은’과 ‘같이’를 어떻게 발음했나요?

 ‘같은’은 [가튼]으로, ‘같이’는 [가치]로 발음했어요. [둘 다 ‘ㄷ’을 끝소리로 가진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로,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철수’, ‘책’, ‘읽-’이 이에 해당함.)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에 붙어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 의미만을 표시하는 형태소로,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가’, ‘을’, ‘-었-’, ‘-다’가 이에 해당함.)가 이어진 것인데]([: ‘갈-’(실질 형태소) + ‘-은’(형식 형태소) / ‘갈-’(실질 형태소) + ‘-이’(형식 형태소)])(‘디디다’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디디다’는 모음 ‘ㅣ’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며,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와 일어나지 않는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확인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ㄷ’과 ‘ㅌ’으로 다르게 소리 나네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음 탐구 활동을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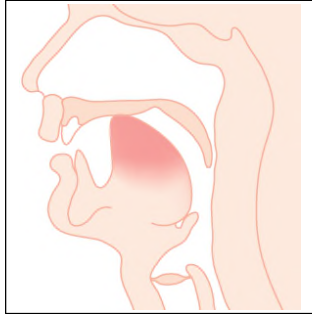
의문	‘같은’은 [가튼]으로, ‘같이’는 [가치]로 발음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탐구	(1) 다음 단어의 발음을 써 보고, 음운 변동의 결과를 알아본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같은[가튼]</td> <td style="text-align: center;">같이[가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	㉡	같은[가튼]	같이[가치]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같이[가치]</td> <td style="text-align: center;">같이[가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	㉣	같이[가치]	같이[가치]	↓
㉠	㉡												
같은[가튼]	같이[가치]												
↓	↓												
㉢	㉣												
같이[가치]	같이[가치]												
↓	↓												
결과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입천장소리, 혀바닥과软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ㅌ, ㅈ’ 따위가 있음.) ‘ㅌ, ㅈ’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밭에’, ‘흙이불’을 <보기>로 제시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문법 귀뜸
 ‘끝인사[끄을사], 곧이어[고디어]’와 같은 단어는 ‘ㄷ, ㅌ’ 뒤에 모음 ‘ㅣ’가 오는데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ㄷ, 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결합했기 때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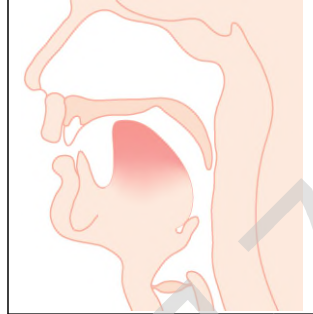
2. 다음은 발음에 따른 혀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제시된 음운을 발음했을 때 혀가 닿는 위치를 고려하여 구개음화가 왜 일어나는지 말해 보자('만이'를 <보기>로 제시하여 구개음화를 묻는 문제에 '만이'는 구개음화의 예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뀐 것이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치조음이자 파열음인 'ㄷ'이 경구개음이자 파찰음인 'ㅈ'으로 바뀐 것이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뀐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ㄷ, ㅌ'을 발음할 때



▲ 'ㅈ, ㅊ'을 발음할 때



▲ 'ㅣ'를 발음할 때

→ 'ㄷ, ㅌ'은 윗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소리 나고, 'ㅈ, ㅊ'은 입천장에서 소리 난다. 모음 'ㅣ'는 혀가 가운데 입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의 위치에서 소리 난다. 이를 통해 'ㅈ, ㅊ'과 'ㅣ'는 소리를 낼 때 혀가 닿는 위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ㄷ, ㅌ'이 'ㅣ'를 만날 때, 소리 나는 위치가 'ㅣ'와 가까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면 좀 더 자연스럽게 쉽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활동 2 음운의 교체 현상 - ③ 된소리되기

1.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 보기 | 의 말을 된소리되기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고, 올바른 발음을 적어 보자.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 'ㄴ, ㄹ'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ㄷ, ㅂ, ㅅ, ㅈ'이 올 때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보기>로 제시하여 된소리되기 현상을 묻는 문제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에서 '할 수'는 ㉡에 해당하는 예시겠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된소리되기와 관련된 표준 발음 법을 <보기>로 제시하여 된소리되기 현상을 분석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 보기 |

국밥	닫다	신고	입고	얹고	닭고
갈 곳	할 적에	갈등(葛藤)	발달(發達)		

㉠	㉡	㉢	㉣
국밥[국빡], 닫다[닫따], 입고[입꼬]	신고[신꼬], 얹고[안꼬], 닭고[닭꼬]	갈등[갈똥], 발달[발딸]	갈 곳[갈곶], 할 적에[할쩌게]

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을 비교해 보고, 그렇게 발음되는 이유를 앞의 활동 1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자.

㉠ 아기를 품에 안다[안따].

[㉡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안다].]([:]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를 묻는 문제에 ‘안겨(안기다)’가 적절한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과 ㉡의 밑줄 친 단어는 ‘안다’라는 같은 형태로 표기되었지만 기본형은 다르다. ㉠의 ‘안다’는 기본형 역시 ‘안다’로 용언의 어간 받침이 ‘ㄴ’이다.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 중 ‘ㄴ’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ㄷ’인 어미가 이어진 경우이므로, [안따]로 발음하는 것이 옳바르다. ㉡의 ‘안다’는 기본형이 ‘알다’이고, 여기서의 ‘ㄴ’은 용언의 어간 받침이 아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충족하지 않는다. 즉 ‘ㄴ’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ㄷ’에 된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고 [안다]로 발음하는 것이 옳바르다.

3. |보기|를 바탕으로 평소에 불필요하게 된소리로 발음하는 단어가 있는지 떠올려 보고,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보자.

|보기|

요즘은 발음의 된소리화가 지나치게 진행되어 실제 언어생활에서 불필요하게 단어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때가 있다. ‘효과(效果)’를 [효 : 파]로, ‘불법(不法)’을 [불뻬]으로, ‘부러지다’를 [뿌러지다]로 발음하는 것이 그 예이다.

‘효과’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2건)

효과이(效果)[효 : -] 전체 보기

「명사」

1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

2 소리나 영상 따위로 그 장면에 알맞은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실감을 자아내는 일.

→ 고추[고추]([꼬추]×), 동그라미[동그라미]([똥그라미]×), 세련되다[세련되다]([썰련되다]×), 교과서[교과서]([교파서]×), 체증[滯症][체증]([체쯩]×)

지식 콕콕

구개음화와 된소리되기

☞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ㅌ, ㄷ, ㅌ, ㅌ, ㅌ, ㅌ, ㅌ’ 등의 이중 모음에서 선행음으로 소리 나는 ‘ㅣ [j]’를 말함.)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ㅌ, 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 된소리되기

안울림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

고1 국어 비상(박영민) | 4(1) 음운의 변동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 활동 1 · 음운 변동의 개념과 유형

1. 다음 글을 읽고, 음운 변동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자.

국어에서는 어떤 **형태소**(을 가진 말의 단위로, ‘이야기책’에서 ‘ ’, ‘ ’과 같은 것을 말함.)(**형태소**에 빈칸을 뚫고 알맞은 용어를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의 **음운**(의 을 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단위 - 예 ‘발 : 팔’의 ‘ ’과 ‘ ’ / ‘김 : 곶’의 ‘ ’와 ‘ ’)(**음운**에 빈칸을 뚫고 알맞은 용어를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웃**’이라는 형태소는 단독으로 발음될 때, 받침의 ‘**ㅈ**’ 소리가 ‘**ㄷ**’ 소리로 바뀌어 [**운**]으로 소리 난다.(: 음절의 규칙)(**웃**의 음운 변동의 유형과 표준 발음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웃**을 예시로 활용하여 음운 변동의 유형과 표준 발음을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웃**’이 ‘**ㅁ**’이나 ‘**ㄴ**’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면 ‘**웃만**[**운만**]’(: 음절의 규칙, 화), ‘**웃놀이**[**운노리**]’(: 음절의 규칙, 화 / - 은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의 음운 현상에 포함되지 않음.)처럼 [**운**]으로 소리 난다.]([: 의 예] 이처럼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음운 변동의)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음운 변동 유형을 나누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교체**)(의 유형 ①), 서로 다른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축약**)(의 유형 ②), 두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탈락**)(의 유형 ③),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경우(**첨가**)(의 유형 ④)]([: ‘**교체, 축약, 탈락, 첨가**’에 빈칸을 뚫고 해당하는 의 유형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이 무엇인지 써 보자.

→ 음운 변동이란 한 이 일정한 에서 음운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2) 다음 단어의 발음을 써 보고, 해당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찾아 연결해 보자.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

고1 국어 비상(박영민) | 4(1) 음운의 변동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음운 변동의 개념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임.

2. 음운, 형태소의 개념

(1)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예 '발 : 팔'의 'ㅍ'과 'ㅍ' / '김 : 곶'의 'ㄱ'과 'ㄱ'

(2)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야기책'에서 '이야기', '책'과 같은 것을 말함.

3. 비음, 유음, 구개음, 반모음의 개념

(1) 비음

콧소리.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ㄴ', 'ㄹ', 'ㅇ' 따위가 있음.

(2) 유음

흐름소리.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국어의 자음 'ㄷ' 따위가 있음.

(3) 구개음

입천장소리. 혀바닥과 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ㄷ', 'ㄸ', 'ㄷ' 따위가 있음.

(4) 반모음

'ㅈ, ㅊ, ㅍ, ㅍ, ㅍ, ㅍ' 등의 이중 모음에서 섰행음으로 소리 나는 'ㅣ [j]'를 말함.

4.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개념

(1)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철수', '책', '읽-'이 이에 해당함.

(2)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에 붙어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 의미만을 표시하는 형태소.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개', '을', '-었-', '-다'가 이에 해당함.

5.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끝인사[꼬딘사], 곧이어[고디어]'와 같은 단어는 'ㄷ', 'ㄷ' 뒤에 모음 'ㅣ'가 오는데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음. 그 이유는 'ㄷ', 'ㄷ' 뒤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결합했기 때문임.

6.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됨.

㉠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 'ㄷ, ㄷ'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한자어에서, 'ㄷ'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TEST 1단계

1. 음운 변동의 개념

한 □운이 일정한 □경에서 다른 □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임.

2. 음운, 형태소의 개념

(1) 음운

말의 □을 □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은 단위.

예) ‘발 : 팔’의 ‘□’과 ‘□’ / ‘김 : 곶’의 ‘□’와 ‘□’

(2) 형태소

□을 가진 가장 □은 말의 단위. ‘이야기책’에서 ‘이□기’, ‘□’과 같은 것을 말함.

3. 비음, 유음, 구개음, 반모음의 개념

(1) 비음

□소리. 입안의 통로를 막고 □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 ‘□’, ‘□’ 따위가 있음.

(2) 유음

흐□소리. 혀끝을 □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옆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국어의 자음 ‘□’ 따위가 있음.

(3) 구개음

입□장□리. 혃바닥과 셴□천□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 ‘□’, ‘□’ 따위가 있음.

(4) 반모음

‘ㅈ, ㅊ, ㅍ, ㅍ, ㅍ, ㅍ, ㅍ’ 등의 □중 모음에서 □행음으로 소리 나는 ‘ㅈ [j]’를 말함.

4.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개념

(1)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질적 의미를 가진 □태소.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수’, ‘□’, ‘읽-’이 이에 해당함.

(2) 형식 형태소

□질 형태소에 붙어 □식적인 의미, 즉 □법적 의미만을 표시하는 □태소.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 ‘□’, ‘-었-’, ‘-다’가 이에 해당함.

5.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끝인사[끄딘사], 곧이어[고디어]’와 같은 단어는 ‘ㄷ, ㅌ’ 뒤에 모음 ‘ㅣ’가 오는데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음. 그 이유는 ‘ㄷ, 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결합했기 때문임.

6.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

□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사□리가 □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됨.

㉠ ‘□, □, □’으로 발음되는 □침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 ‘□, □’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간 □침 뒤에 첫 소리가 ‘ㄱ, ㄷ, ㅂ, ㅅ, ㅈ’인 □미가 올 때

㉢ □자어에서, ‘□’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 관□사□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TEST 2단계

1. 음운 변동의 개념

한 이 일정한 에서 다른 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임.

2. 음운, 형태소의 개념

(1) 음운

말의 을 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단위.

예 '발 : 팔'의 'ㅂ'과 'ㅍ' / '김 : 곶'의 'ㅌ'와 'ㄱ'

(2) 형태소

을 가진 가장 말의 단위. '이야기책'에서 ''과 같은 것을 말함.

3. 비음, 유음, 구개음, 반모음의 개념

(1) 비음

. 입안의 통로를 막고 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ㄴ', 'ㄹ', 'ㅇ' 따위가 있음.

(2) 유음

. 혀끝을 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국어의 자음 'ㄹ' 따위가 있음.

(3) 구개음

. 혀바닥과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ㄷ', 'ㅌ', 'ㅊ' 따위가 있음.

(4) 반모음

'ㅑ, ㅕ, ㅖ, ㅗ, ㅛ, ㅜ, ㅠ' 등의 모음에서 으로 소리 나는 'ㅣ [j]'를 말함.

4.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개념

(1)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이 이에 해당함.

(2) 형식 형태소

형태소에 붙어 인 의미, 즉 의미만을 표시하는 .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가 이에 해당함.

5.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끝인사[], 끝이어[]'와 같은 단어는 'ㄷ, ㅌ' 뒤에 모음 'ㅣ'가 오는데도 가 일어나지 않음. 그 이유는 'ㄷ, ㅌ' 뒤에 형태소가 아니라 형태소가 결합했기 때문임.

6.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

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가 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됨.

- ㉠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 ㉡ 'ㄴ, ㄹ'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뒤에 첫소리가 'ㄱ, ㄷ, ㅅ, ㅈ'인 가 올 때
- ㉢ 에서,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 ㉣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TEST 3단계

1. 음운 변동의 개념

한 □□이 일정한 □□에서 다른 □□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임.

2. 음운, 형태소의 개념

(1) 음운

말의 □을 □□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예) ‘발 : 팔’의 ‘□’과 ‘□’ / ‘김 : 곶’의 ‘□’와 ‘□’

(2) 형태소

□을 가진 가장 □□ 말의 단위. ‘이야기책’에서 ‘□□□’, ‘□’과 같은 것을 말함.

3. 비음, 유음, 구개음, 반모음의 개념

(1) 비음

□□□. 입안의 통로를 막고 □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 ‘□’, ‘□’ 따위가 있음.

(2) 유음

□□□□. 혀끝을 □□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국어의 자음 ‘□’ 따위가 있음.

(3) 구개음

□□□□□. 혀바닥과 □□□□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 ‘□’, ‘□’ 따위가 있음.

(4) 반모음

‘ㅈ, ㅊ, ㅍ, ㅊ, ㅊ, ㅊ’ 등의 □□ 모음에서 □□□□으로 소리 나는 ‘[j]’를 말함.

4.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개념

(1)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 의미를 가진 □□□□.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 ‘□’, ‘읽-’이 이에 해당함.

(2) 형식 형태소

□□ 형태소에 붙어 □□□□인 의미, 즉 □□□□ 의미만을 표시하는 □□□□.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 ‘□’, ‘-었-’, ‘-다’가 이에 해당함.

5.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끝인사[□□□□], 끝이어[□□□□]’와 같은 단어는 ‘□□, □□’ 뒤에 모음 ‘□’가 오는데도 □□□□□□가 일어나지 않음. 그 이유는 ‘□□, □□’ 뒤에 □□ 형태소가 아니라 □□ 형태소가 결합했기 때문임.

6.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

□□□□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가 □□□□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됨.

㉠ ‘□□, □□, □□’으로 발음되는 □□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 ‘□□, □□’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 □□ 뒤에 첫 소리가 ‘ㄱ, ㄷ, ㅂ, ㅅ, ㅈ’인 □□가 올 때

㉢ □□□□에서, ‘□□’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 □□□□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TEST 4단계

1. 음운 변동의 개념

한 ___이 일정한 ___에서 다른 ___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임.

2. 음운, 형태소의 개념

(1) 음운

말의 ___을 ___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예) '발 : 팔'의 '___'과 '___' / '김 : 곶'의 '___'와 '___'

(2) 형태소

___을 가진 가장 ___ 말의 단위. '이야기책'에서 '___', '___'과 같은 것을 말함.

3. 비음, 유음, 구개음, 반모음의 개념

(1) 비음

_____. 입안의 통로를 막고 ___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___', '___', '___' 따위가 있음.

(2) 유음

_____. 혀끝을 ___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___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국어의 자음 '___' 따위가 있음.

(3) 구개음

_____. 혀바닥과 _____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___', '___', '___' 따위가 있음.

(4) 반모음

'ㅈ, ㅊ, ㅊ, ㅊ, ㅊ, ㅊ' 등의 _____ 모음에서 _____으로 소리 나는 'ㅈ [j]'를 말함.

4.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개념

(1)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_____ 의미를 가진 _____.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___', '___', '읽-'이 이에 해당함.

(2) 형식 형태소

_____ 형태소에 붙어 _____인 의미, 즉 _____의 미만을 표시하는 _____.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___', '___', '-었-', '-다'가 이에 해당함.

5.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끝인사[____], 끝이어[_____]'와 같은 단어는 '___, ___' 뒤에 모음 '___'가 오는데도 _____가 일어나지 않음. 그 이유는 '___, ___' 뒤에 _____ 형태소가 아니라 _____ 형태소가 결합했기 때문임.

6.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

_____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_____가 _____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됨.

㉠ '___, ___, ___'으로 발음되는 _____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 '___, ___'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_____ 뒤에 첫소리가 'ㄱ, ㄷ, ㅂ, ㅅ, ㅈ'인 _____가 올 때

㉢ _____에서, '___' 받침 뒤에 'ㄷ, ㅂ, ㅅ'이 올 때

㉣ _____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

고1 국어 비상(박영민) | 4(1) 음운의 변동 복습 필기용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활동 1 음운 변동의 개념과 유형

1. 다음 글을 읽고, 음운 변동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자.

국어에서는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웃'이라는 형태소는 단독으로 발음될 때, 받침의 'ㅊ' 소리가 'ㄷ' 소리로 바뀌어 [운]으로 소리 난다. 그런데 '웃'이 'ㄹ'이나 'ㄴ'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면 '웃만[운만]', '웃놀이[운노리]'처럼 [운]으로 소리 난다. 이처럼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교체), 서로 다른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축약), 두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탈락),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경우(첨가)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이 무엇인지 써 보자.

(2) 다음 단어의 발음을 써 보고, 해당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찾아 연결해 보자.

단어	음운의 변화	음운 변동 유형
물+난리 → []	•	• 교체
날+-은 → [나은]	받침의 'ㅎ'이 발음되지 않음.	• 축약
숨+이불 → []	•	• 탈락
놓+-고 → []	•	• 첨가